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이 지 민

2012년 2월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지도교수 김 양 순

이 지 민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이지민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가정환경	4
2. 자아존중감	6
3. 공감능력	10
4. 자기조절능력	14
5.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16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
2. 측정도구	20
3. 분석방법	24
IV. 연구 결과 및 분석	25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	26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28
4.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29

5.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31
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상관관계	33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35
2. 제언	40

참고문헌	41
------	----

Abstract	49
----------	----

부 록	52
-----	----

표 목 차

<표 III-1> 자아존중감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1
<표 III-2> 공감능력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2
<표 III-3> 자기조절능력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3
<표 IV-1> 전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 IV-2>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	26
<표 IV-3> 아동의 공감능력 평균과 표준편차.....	27
<표 IV-4>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27
<표 IV-5>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28	
<표 IV-6>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29	
<표 IV-7>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31	
<표 IV-8>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	33

국문 초록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이 지 민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양 순

이 연구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특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 다섯 곳의 5, 6학년 아동 398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아는 능력이 타인의 사고 또는 생각을 아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에서는 행동적인 면에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목표 혹은 계획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손가족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하위영역 자기조절과 충동성 조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은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동성조절은 양부모가족 아동이 대가족,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하위영역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잘 산다고 인정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정한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조절능력은 경제수준이 매우 잘 산다고 인정한 아동이 보통, 어려운 편이라고 인정한 아동보다, 그리고 잘 사는 편이라고 인정한 아동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정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을 제외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손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이 양부모가족 아동과 대가족아동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결손가족아동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상대적 빈곤함을 느끼는 아동 등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목표달성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취감을 통해 스스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이 속한 가정환경은 성장발달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10)에 의하면 2인 가구 24.3%와 1인 가구 23.9%가 3인 가구 21.3% 및 4인 가구 22.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고령화 사회와 이혼, 만혼, 혼인을 감소, 독거노인 증가, 도시지역 생활패턴 추구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이혼과 재혼율이 증가하면서 조손가족의 숫자 역시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10년 6만 9175가구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손가구의 절반 이상인 53.2%는 자녀의 이혼과 재혼에 의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40만원 미만이 20.1%로 가정 내·외부의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와 가계경제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아동과 빈부격차로 인하여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층 아동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되고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며 특히 결손가족과 같은 불안정한 가족형태는 아동기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리적 적응이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며 고위험군 아동 중 한부모가족 아동의 중독률이 양부모가족 아동의 중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형태와 가정의 경제수준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이 가진 특성과 능력에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진 특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 중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여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치감과 태도 및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고 건전한 인성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아동기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일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Coopersmith, 1967; Harter, 1990; 이은선; 2002).

그리고 아동의 공감능력은 유아기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학령기에 접어들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발달하게 된다.

Rothar & Bates(1998)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타고난 기질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기질의 발현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의 세 가지 능력이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동은 자신과 외부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힘든 일을 시도하며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달성했을 때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민태 외 5인, 2011).

이 연구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환경적인 요인 중 아동의 가족형태와 경제적 지각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와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가족형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은 관계가 있는가?
4.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과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은 관계가 있는가?
5.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환경

아동이 경험하는 1차적 환경은 가정이며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갖게 되는 운명 공동체로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학정, 2003; 김정희, 2004.).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가정환경은 가족형태와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가족형태

아동은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최근 이혼률의 증가와 부모의 해외취업 등 구직활동으로 인한 부모와의 별거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모두 부재한 결손 가족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하와 조옥귀(2002)의 연구에 따르면 결손가족 아동들은 갑작스런 가정의 변화와 부모의 상실로 인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심리적 ·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 우울, 적대감 등 부정적인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손가족 아동들은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면서 숨기지만 부모가 다시 함께 살 것이라고 확신하는 동시에 아동 자신의 생활은 전과 같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갈등 감정을 갖는다. 그들의 부모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유제민, 김정희, 2004). 한부모 가족 아동은 양부모 가정 아동보다 부모의 행동에 대한 통제와 훈육이 약해지며 이는 아동의 자기통제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모의 부재 또는 부의 부재로 인한 역할 동일시에 대한 학습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의임, 2004).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는 그들이 부모였을 때와는 달리 손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손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용적인 동시에 별을 쉽게 주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Sands와 Glen(2000)의 연구에서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의 정신적 건강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구성원간의 낮은 응집력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주, 2007, 재인용). 가족형태는 가족특성을 설명하는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인 변인의 하나이며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를 대가족, 양부모 가족, 결손가족으로 나누었으며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기타에 응답한 아동은 결손가족으로 범주에 포함하였다.

2)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

가족의 경제수준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온정적이며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감과 외로움을 더 느끼며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Lemper et al., 1989; 조미영, 1999, 어주경, 1998).

홍강의(1998)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어렵다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 불화가 지속되면서 좌절, 분노, 절망의 감정들이 아동에게 표출되고 아동들은 정서적 불안과 우울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을 매우 잘 사는 편, 잘 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성장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65; 강석기, 2005).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문제와 결점이 있고 현재보다 나은 삶을 기대 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이다(유주희, 2009).

Erikson(1950)은 아동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규정하였으며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아동은 기초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근면성을 순조롭게 발달시키게 되면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김미란, 2003).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11~12세경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낮아지는데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자기평가가 엄격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송명자, 2001).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인가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나타내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감을 나타내는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정의하였다.

2) 자아존중감의 특징

자아존중감은 세부적이거나 일시적 변화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며 성, 연령, 상황 등 다양한 경험영역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Coopersmith, 1967; 장미영, 2006).

자아존중감의 주요 기준은 중요도, 능력, 미덕, 힘이다. 중요도는 자기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으며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능력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취의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력의 정도, 미덕은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을 달성한 정도, 그리고 힘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매길수록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최대의 자기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Coopersmith, 1967; 최인숙 외, 2007).

Maslow(1971)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욕구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음식, 물, 공기, 수면 등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안전, 안정, 보호, 질서 및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해방 등과 같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특정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욕구는 기술을 습득하고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음으로써 충족된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아존중감과 스스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아존중감은 명성, 존중, 지위, 평판, 위신, 사회적인 성과 등에 기초를 두는데 이것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반면 스스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내적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에 대해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욕구 위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의 모든 욕구를 충족한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정옥분, 2009).

Resoner(198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안다고 하였고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모험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필요 없는 신경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이현송, 2008,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현실에 대한 실존적인 삶

을 누릴 수 있다.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성격의 어떤 면도 차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이전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느끼며 이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선택과 행동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 삶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며 미래는 과거의 사건이나 변화무쌍한 환경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인 적응을 피하는 대신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추구하는 삶을 즐기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송인섭, 1996).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와 자신의 특성에 대한 느낌과 평가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특성과 유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한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각한다(Shaffer, 1999; 이경님, 2002).

Shaffer(1999)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특징과 유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자신을 부정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이경님, 2002).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불확실감을 갖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가지며 열등감, 좌절감, 무력감, 자기비하 등의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초래하게 된다(정옥분, 2009).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인성의 핵심이 되고 인간의 욕구 중의 하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ogers, 1951; Maslow, 1954; Bandura, 1986; 강석기, 2005).

3)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희정(2003)의 연구는 한부모 가족 아동은 부 또는 모가 없는데서 오는 열등감과 심리적인 불안감 혹은 이혼이나 재혼 등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혼란을 겪을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김의임(2004)은 아동은 부모의 애정 어린 보살핌 속에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부모는 아동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아동은 건전한 가정과 원활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과 같은 결손가족 아동과 양부모 가족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손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김영란, 안민주, 2005; 나현주, 2006; 신경년, 2010). 이 결과는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존재유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이지혜, 2002).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간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키며 갈등을 증가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야기된 불만과 적대감이 가족 구성원에게로 전이되어 체벌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방해한다고 나타났다. 모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지현, 2008).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공감능력

1) 공감능력의 개념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empathia'에서 유래하였다. 'empathia'의 'em'은 'in', 'into'(~속으로, ~안으로)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pathia'는 라틴어의 'pathos'(고통 또는 열정)를 뜻한다. 이를 종합하면 공감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느끼는 것'이다. 공감의 개념은 19세기 말 Vischer(1873)가 미학에서 사용한 'Einfühl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 Einfühlung은 'ein(안에)'과 fühlen(느낀다)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들어가서 느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박성희, 2004). 이러한 공감의 개념을 영어의 'empathy'로 처음 소개한 사람은 Titchner(1909)이다. 그는 공감을 '마음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였다(서성애, 2007).

공감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주관적 측면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의 사적인 지각세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느끼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정서에 대한 대리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서 인간행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ogers, 1975; Wips, 1987; 임윤희, 2008; 박지연, 이은희, 2008). 그리고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태와 경험을 상상하여 느끼는 자기관찰이며 이 결과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 공감의 과정이다. 이와 같이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알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재학, 하지현, 2009).

이 연구에서는 Davis(1980)의 IRI(Interpersonal Reaction Index)척도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와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검사를 박성희(1997)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검사지를 우영혜(2007)가 초등학교 아동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아동의 공감능력을 타인의 사고나 생각을 정확히 아는 인지적 공감요소와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히 아는 능력 즉 상대방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정서적 공감요소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2) 공감능력의 구성요소

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 준거들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이다 (Rogers, 1975; 신경일, 1994).

Underwood & Moore(1982)는 공감을 타인의 사고나 생각을 정확히 아는 인지적 역할수용과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히 아는 정서적 역할수용으로 구분하였다(전은정, 2009). 공감을 일상적인 언어사용 속에서 분석한 Gribble과 Oliver(1973)은 ‘A가 B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이유를 알거나 이해한다.’는 인지적인 차원과 ‘A는 B가 X에 반응하는 상황에 처하여(상황 X에 대한 B의 결과로서) B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낀다.’라는 정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박성희, 1992).

(1) 인지적 공감

인지적 공감은 공감을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고 타인의 상태에 대한 대리적 경험 없이도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Davis, 1980; 전은정, 2009). 이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적 특성을 Davis(1980)가 정의한 조망취하기와 상상하기로 정한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에 대한 이해부족을 자아중심성과 관점수용 능력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자아중심성이 극복되고 탈 중심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신과는 다른 타인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Mead, 1934; Piaget, 1932; 신경일, 1994).

공감은 역할수용과 관점수용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성숙한 공감으로 발달한다. 공감적 고통은 타인의 역할이나 입장을 수용하는 역할수용, 그리고 관점수용은 타인에 대한 관심의 감정과 연민 또는 그의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서 동정적 고통으로 변화된다(Hoffman, 1982).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공

감능력도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발달한다(Piaget & Inhelder, 1969; 권정안, 2001). 아동들은 자발적으로 무의식적 대리 정서반응으로써 공감을 경험하나 성장하면서 자신의 공감적 경험의 원천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온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Hoffman, 1982; 신경일, 1994).

(2) 정서적 공감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으로 구분한다. 공감적 관심이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온정, 연민, 관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개인적 고통은 부정적인 타인의 경험에 대해 불안과 불쾌감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Davis, 1980; 우영혜, 2007). 즉 공감은 대상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이다(Eisenberg & Strayer, 1987; 신경일, 1994).

공감은 비자발적으로 때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치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대상과 분리되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대리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Freud(1953)의 동일시 개념 ‘전체적으로 온전한 하나임을 느끼고 알아진다.’와는 서로 구분된다(Hoffman, 1984; Barnett외, 1982; 박성희, 1992).

3)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

Minuchin(1974)는 가족 내의 정서적 상호관계를 가족의 주요기능으로 강조하였으며 균형적인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서적인 면에서 더 잘 공감할 수 있으나 타인의 감정을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형태에 따라 인지적인 공감능력의 차이는 없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민수, 2000).

아동의 공감능력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동일체감이 강하면 부모 자신의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를 이루려는 경향이 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욕구가 많을 때 자녀에 대한 공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류승민(2010)의 연구에서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아동은 부모와의 인지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어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언어나 행동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가족 이외의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줄 알고 타인의 감정을 느낄 줄 아는 공감능력이 적절하게 발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충현(2011)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자녀관계이며 아동의 공감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욱 밀착된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가 지나치게 일체감이 높으면 오히려 심리적 분리 및 자아분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형태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공감능력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가족구성원간의 통제 능력의 결여, 부정적인 성격, 적대감 등 복합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장혜자, 2000).

한부모 가족의 편모나 편부 역시 경제적 수입을 위한 직장생활과 가사와 아동 양육을 병행하는데서 생기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권양자, 2000).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인 불안감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감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자기조절능력

1) 자기조절능력의 개념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이란 환경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과 조화롭게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외적인 통제가 아닌 내면화 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Kopp, 1982; 송혜영, 2006;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최근에는 자기조절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력과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를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erryberry & Rothbart, 1988; Eisenberg et al., 1996; 김문신, 2003).

대부분의 아동은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행동을 사회적인 상황적 요구와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현재의 혐오적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능력을 획득한 아동을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아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고 신중히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고 하였다(이경임, 1996; 이현민, 조복희, 1998).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이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2) 자기조절능력의 발달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성과가 훌륭하면 보상 받을만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 받을 만한 행위는 더 노력하고 처벌받을 행위는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Bandura, 1986; 송혜영, 2006).

생애 초기에 시작되는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의 지시에 따르는 순종적 행동으로 12~18개월경에 나타난다.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2세경이 되면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모의 지시나 금지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외적통제 행동을 보인다. 3~4세가 되면 아동은 자율적이며 내재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9~12세에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발달된 보다 복잡한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초기부터 서서히 발달한 자기조절능력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Marry & Laura, 1998; Kochanska, Tjebkes, & Froman, 1998; Kopp, 1982; Power, 외, 1994; 정희선, 2009, 재인용).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므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더 중요하게 된다. 아동들의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나 교사에 의한 외적인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자기조절의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점차 내면화되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허정경, 2003). 즉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행동규범이나 목표에 합치되도록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이며 한 개인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조정하는 내적 혹은 교류적인 과정이다(Karoly, 1993; Hoyle, 2006; 한호성, 2007).

3)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자기조절능력이 발달되며 발달단계에 맞춰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사회화 과정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라고 하였으며 부

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손가족의 아동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문제와 거짓말, 충동적인 행동,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를 포함하는 환경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Brown, 2003; 김지연, 2009, 재인용).

자기조절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두 다룬 연구보다는 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으며 모의 양육행동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혜순, 강기숙, 2005; 양옥승, 이정란,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양육방법을 적용하며 문제 상황에서 아동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아동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주, 이재연, 1996; 원희정, 2006).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공통적으로 관련성 있는 요인으로써 이를 통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긍정적인 평가와 존중을 받음으로써 발달하며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공감능력은 아동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집단 내에서 소속감과 존중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김경미, 2011).

박은선(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 가족 이외의 중요한 대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성진(2005)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낮은 아동은 상대방의 감정과 사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그 감정에 대해 자신의 경험처럼 수용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수용받기 힘들며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또래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또래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발달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양원경, 1998; 김은진, 2004; 김민선, 2007)의 결과를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충동억제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이경남, 2001; 이영주, 2007; 유주희, 2009).

자기조절능력은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에 공통된 관련변인 문제행동을 통해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호정, 2001; 김지연,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신뢰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가지고 책임감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무기력하다고 느끼며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이나 상황을 피하게 된다(정희선, 2009).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제한 없이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을 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해결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허정경, 2004; 유주희, 2009).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아동의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

박지수(2010)의 연구에서 아동의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두변인 간에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도 높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는 박지수의 연구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최명자, 2006; 강은화, 2009; 송창호, 2011; 이은숙, 2011). 즉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감능력이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원만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의 제한 없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공감능력이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보다 문제행동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김호정, 2001; 정명실, 2003; 조혜리, 2009; 이영임, 2009)를 통하여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두변인간에 학교생활적응력과 문제행동이 공통된 주요 관련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예비조사는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450부의 설문지가 배포 되었다. 회수된 432부 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미응답한 34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남자 225명, 여자 173명으로 총 398명이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Coopersmith(1967)와 McChale과 Chaignhead(1988)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송기현(2005)이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하위영역별 6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자아존중감(general self-esteem)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자아상(self-image)을 나타내며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2)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 self-esteem)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3) 가정적 자아존중감(home and parents self-esteem)

가정생활에 관한 것으로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즉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

(4) 학교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

학교생활에 관한 것으로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을 포함한다. 즉 학생으로서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이루어진다. 8, 24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며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분포는 .50~.86사이이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자아존중감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해당문항번호	문항수	α.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6	.78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6	.86
가정적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6	.85
학교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6	.50
계		24	.90

*역채점 문항

2) 공감능력 검사

아동의 공감능력은 Davis(1980)의 IRI(Interpersonal Reaction Index)척도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와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검사를 박성희(1997)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검사지를 우영혜(2007)가 초등학교 아동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 요인은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의 인지적 공감과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의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망취하기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상상하기는 자신이 영화, 소설, 연극 등 가상적인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상상력을 공감적 각성은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공감적 관심은 상대방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2, 8, 11, 12, 13, 14, 19, 21, 23, 27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의 Cronbach's α 계수는 .85이며 공감능력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분포는 .72~.80 사이이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공감능력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영역	하위요인	해당문항번호	문항수	α .
인지적	조망 취하기	16, 19*, 22, 25, 28	5	.72
		17, 20, 23*, 26, 29		
정서적	공감적 각성	1, 2*, 3, 4, 5, 6, 7, 8*	15	.80
		9, 10, 11*, 12*, 13*, 14*, 15		
공감	공감적 관심	18, 21* , 24, 27* 30	5	
계			30	.85

*역채점 문항

3) 자기조절능력 검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SCRS(Self-Control Rating Scale)를 이순규(1995)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검사지를 김문신(2003)이 아동의 수준에 맞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2, 7, 10, 12, 14, 15, 16, 17, 18, 19, 20, 23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Cronbach's α 계수는 .82이며 자기조절능력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분포는 .71~.73 사이이고, 각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자기조절능력 검사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해당문항번호	문항수	α .
자기조절	1, 2*, 3, 4, 5, 6, 7*, 8, 9, 10*	10	.71
충동성조절	11, 12*, 13, 14*,15*, 16*, 17*, 18*, 19*, 20, 21, 22, 23*	13	.73
계			.82

*역채점 문항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형태와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전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성별	남	225	(56.5)
	여	173	(43.5)
가족 형태	대가족	59	(14.8)
	양부모 가족	247	(62.1)
	결혼 가족	92	(23.1)
경제 수준	매우 잘 산다	31	(7.8)
	잘 사는 편이다	174	(43.7)
	보통이다	167	(42.0)
	어려운 편이다	26	(6.5)
전체	계	398	(100)

<표 IV-1>에 의하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아동이 56.5%, 여자아동이 43.5%, 가족형태는 대가족 14.8 %, 양부모 가족 아동이 62.1%, 결혼가족 23.1%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은 매우 잘 산다 7.8%, 잘 사는 편이다 43.7 % 보통이다 42.0%, 어려운 편이다 6.5%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2>, <표 IV-3>, <표 IV-4>와 같다.

<표 IV-2>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398)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전체
M	3.64	3.56	3.78	3.08	3.52
SD	.71	.76	.82	.58	.58

<표 IV-2>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점수는 3.5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3.61점(SD=.71), 사회적 자아존중감 3.56점(SD=.76), 가정적 자아존중감 3.78점(SD=.82), 학교 자아존중감 3.08점(SD=.58)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총체적, 사회적, 학교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가정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에서 느끼는 학업적 유능감과 평가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3> 아동의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398)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전체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	
M	3.29		3.35		3.33
SD	.58		.51		.47

<표 IV-3>에 의하면 아동의 공감능력 전체 평균점수는 3.3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 3.29점(SD=.58), 정서적 공감 3.35점(SD=.51)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하위 영역에서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사고 또는 생각을 아는 것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아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4>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398)

	자기조절	충동성 조절	전체
M	3.46	3.03	3.21
SD	.52	.51	.45

<표 IV-4>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전체 평균점수는 3.2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3.46점(SD=.52)이 충동성 조절 3.03점(SD=.5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조절하는 능력이 행동적인 면에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N=398)

		남	여	t
		M(SD)	M(SD)	
자아 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3.65(.73)	3.63(.68)	.28
	사회적 자아존중감	3.51(.79)	3.62(.71)	-1.45
	가정적 자아존중감	3.75(.82)	3.82(.82)	-.88
	학교 자아존중감	3.08(.57)	3.09(.58)	-.26
공감 능력	인지적 공감	3.21(.60)	3.39(.53)	-3.17*
	정서적 공감	3.24(.52)	3.50(.47)	-5.17***
자기조절 능력	자기조절	3.42(.51)	3.50(.53)	-1.60
	충동성 조절	3.03(.52)	3.04(.51)	-.192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가정적,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 남아(M=3.21), 여아(M=3.39), 정서적 공감 남아(M=3.24), 여아(M=3.50)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사고 또는 생각을 아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배치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N=398)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F
		M(SD)	M(SD)	M(SD)	
자아 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3.48(.74)a	3.77(.68)b	3.39(.67)a	12.086***
	사회적 자아존중감	3.50(.77)b	3.68(.75)b	3.28(.70)a	9.992***
	가정적 자아존중감	3.83(.72)b	3.88(.79)b	3.48(.88)a	8.488***
	학교 자아존중감	3.03(.55)ab	3.16(.56)b	2.88(.57)a	8.623***
공감 능력	인지적 공감	3.30(.46)	3.34(.63)	3.16(.49)	3.305
	정서적 공감	3.33(.51)	3.38(.52)	3.28(.49)	1.354
자기 조절 능력	자기조절	3.48(.56)ab	3.50(.51)b	3.33(.48)a	3.305*
	충동성조절	2.90(.58)a	3.10(.51)b	2.95(.44)a	1.354**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에 의하면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과 대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과 대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과 대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아동의 자아존중감 모든 하위영역에서 결손가족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조절능력은 하위영역 자기조절에서 $p < .05$, 충동성 조절에서 $p <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영역 자기조절에서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동성 조절은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과 대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과 대가족 아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가족 내에서 조부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부적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능력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배치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7> 과 같다.

<표 IV-7>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N=398)

		매우 잘 산다	잘 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F
		M(SD)	M(SD)	M(SD)	M(SD)	
자아 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4.09(.77)c	3.75(.68)b	3.45(.65)a	3.60(.77)ab	10.456***
	사회적 자아존중감	3.92(.76)c	3.68(.76)bc	3.41(.69)ab	3.28(.88)a	7.637***
	가정적 자아존중감	4.36(.61)c	3.92(.79)b	3.59(.76)a	3.38(.99)a	13.297***
	학교 자아존중감	3.42(.64)	3.16(.57)	2.96(.51)	2.94(.69)	8.069
공감 능력	인지적 공감	3.56(.73)	3.35(.58)	3.19(.52)	3.22(.60)	4.724
	정서적 공감	3.51(.59)	3.38(.50)	3.29(.51)	3.37(.49)	1.952
자기조절 능력	자기 조절	3.74(.54)	3.49(.52)	3.39(.49)	3.36(.54)	4.661**
	충동성 조절	3.26(.62)c	3.10(.53)bc	2.95(.46)ab	2.87(.43)a	5.10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7>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이 잘 사는 편이다, 보통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잘 사는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이 보통이라고

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이 잘 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잘 사는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은 보통 또는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자아존중감 모든 하위영역에서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지각하는 경제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하위영역 자기조절에서 $p <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이 보통,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잘 사는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
(N=398)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자 아 존 중 감	① 총체적 자아존중감	1.00						
	② 사회적 자아존중감	.746***	1.00					
	③ 가정적 자아존중감	.542***	.475***	1.00				
	④ 학교 자아존중감	.499***	.514***	.495***	1.00			
공 감	⑤ 인지적 공감	.392***	.377***	.376***	.342***	1.00		
	⑥ 정서적 공감	.283***	.318***	.317***	.294***	.533***	1.00	
자 기 조 절	⑦ 자기조절	.521***	.446***	.375***	.503***	.502***	.394***	1.00
	⑧ 충동성 조절	.183***	.160**	.177***	.434***	.309***	.178***	.516***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4>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r=.521,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r=.392, p<.001$), 정서적 공감($r=.283, p<.001$), 충동성 조절($r=.183,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r=.446,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r=.377, p<.001$), 정서적 공감($r=.318, p<.001$), 충동성조절($r=.160,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공감($r=.376,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조절($r=.375, p<.001$), 정서적 공감($r=.317, p<.001$), 충동성조절($r=.177,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r=.503,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충동성조절($r=.434, p<.001$), 인지적 공감($r=.342, p<.001$), 정서적 공감($r=.294,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하위 영역에서 인지적 공감은 자기조절($r=.502, p<.001$), 충동성조절($r=.309, p<.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서적 공감은 자기조절($r=.394, p<.001$), 충동성조절($r=.178, p<.001$)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기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타인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사고 또는 생각을 잘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며 배려를 잘 할수록 도덕적 규범과 규칙을 잘 수행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낼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특성에 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위기에 놓인 아동,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층 아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되며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고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에서 느끼는 학업적 유능감과 평가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은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아는 능력이 타인의 사고 또는 생각을 아는 능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목표 혹은 계획을 조절하는 능력이 행동적인 면에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 보면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에는 남녀 성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이경남, 1997; 김미란, 2004; 정희선, 2009)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Bledos, 1964

; Gecas, 1971, 이경남, 1997; 최인숙 외, 2007)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강로사 외, 1994; 정익중, 2007) 등 자아존중감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 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앞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와 요인을 분석하여 검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Eisenberg(1986)는 비언어적 측정방식이나 생리적 지표를 사용한 측정치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보이지 않으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경우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공감능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박성희, 1997, 재인용). 그리고 이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대부분의 연구(Eisenberg & Lennon, 1983; Davis, 1983; 이경주, 2002; 전은정, 2009)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조절, 충동성 조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Derryberry & Rothbarth, 1998; Eisenberg 외, 1996; 한영민, 2004)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으로 자기를 적절히 통제하며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응하는데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하여 과거에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양육태도의 차이, 또래집단이나 대중 매체로부터의 모방과 사회적 학습 등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공감하기에 적합하도록 남성의 뇌는 체계화하기에 적합하도록 발달한다고 하였다(Baron-Cohen, 2003; 박상미, 2010). 공감능력의 남녀 성차에 따른 선행연구결과의 차이는 향후 반복연구와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 아동이 대가족,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 대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대가족, 양부모가족, 결손가족 아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가족,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양부모 가족, 결손가족 아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아동의 자아존중감 모든 하위 영역에서 결손가족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부모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지지가 낮은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이창식, 박미자, 2009)와 일치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라 공감능력은 가족형태와 같은 가족환경이 주는 영향보다는 타고난 기질, 성격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하위영역 자기조절과 충동성 조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은 양부모 가족 아동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동성조절은 양부모 가족 아동이 대가족, 결손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부모가족 아동들이 결손가족 아동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노덕효, 2010)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양부모가족과 대가족 아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가족 내에서 조부모이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차이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하위영역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하위영역 중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윤연정, 이미숙, 2007),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어주경, 1998; 이선미, 2005)와 일치한다.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형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공감능력은 가족형태, 경제적 수준 등 아동의 주위 환경 보다는 타고난 기질, 성격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경제 수준이 매우 잘 산다고 인지한 아동이 보통,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잘 사는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심리적 자원의 부족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일수록 적극적으로 문제해결하기 보다는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노덕효, 2010)와 일치한다.

김미애(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각한 아동들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와 열등감 등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정신건강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동의 지각에 따른 상대적 빈곤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나누어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김은숙, 2011),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박지수, 2010),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정희선, 2009)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일수록 충동억제능력도 높게 나타나며 가정,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보이고(김민태, 정지은, 2011) 인터넷 중독,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조절능력이 낮다(김혜원, 정일현,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낮은 아동들은 공격적인 행동과 사회적으로 위축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및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Findlay, Giradi 와 Coplan, 2006)는 선행연구 결과와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나타나 충동적이며(김원희, 이동훈, 2010) 한 가지 일에 주의집중하기 어려워 산만하고 대인관계와 학교 또래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인다(이연실,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 아동과 대가족 아동보다 결손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김의임(2004)의 연구에서는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형태적 결손가족의 증가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보장과 심리적인 자녀 교육이 결핍된 기능적 결손가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지역사회 및 정부차원의 복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의 결과 또한 공감능력을 제외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이 매우 잘 산다, 잘 사는 편이라고 인지한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각하는 아동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이 스스로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과 상대적 빈곤함을 느끼는 아동들을 위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일반가정아동에 비하여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다양한 문화생활과 외부 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이 제주도내 초등학생 5,6학년생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아동 모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므로 아동의 솔직하지 않은 반응이나 부주의한 반응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면담이나 교사, 부모, 아동 자신의 지각을 종합한 검사를 실시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로사 외 6인(199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 가정대학술지 제27권** 91-93
- 강석기(2005).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간 관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 16권 1호** 165-194
- 강은화(2009).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자기조절능력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양자(2000). 저소득 부자가정의 현황과 복지정책 방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안(2001).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11). 공감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가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3).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의식 수준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이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태, 정지은(2011). **아이의 자존감** 서울: 지식채널
- 김영란, 안민주(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26권** 105-124
- 김원희, 이동훈(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기 통제력이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1권 4호** 1767-1782
- 김은숙(2011). 아동의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동기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임(2004).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평면 표현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2004).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2009).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의 자기조절 및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현(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정서교양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순, 강기숙(2005).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 23권 4호** 17-26

김혜원, 정일현(2010). 청소년 부적응행동의 유형 · 정도와 자아건강성의 관계.

(사)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1권 1호 225-244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현주(2006). 가정환경과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덕효(2010).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승민(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
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미(2010). 초등학교 학생의 공감하기, 체계화하기, 사회성숙도간의 관계 및 성차.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1992). 공감적 이해의 구성요소. **청주교육대학교논문집 제29권** 193-235

박성희(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박은선(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 일반가정과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수(2010).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공감능력과 교우관계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연, 이은희(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2호 369-389

- 서성애(2007).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17권 1호** 127-148
- 송기현(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200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인섭(1996). 자아개념의 교육심리학적 의미.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 송창호(2011).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영(2006).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년(2010). 사회적 기술 훈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심리행동연구 제2권 1호** 57-76
- 신경일(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학생생활 연구소 제29권 1호** 1-37
- 신지현(2008). 저소득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환경 변인의 중재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하, 조옥귀(2002). 아동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 아동의 공격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인문논총지, 15 : 55-74**
- 양옥승, 이정란(2002). 자기조절의 개념과 발달. **덕성여자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 10권** 53-78
- 양원경(1998).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혜(2007).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학, 하지현(2009). 정신분석에 있어서의 공감. **신경정신과학 제48권 1호** 5-11

- 유제민·김정휘(2004).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정신 병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주희(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 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 이미숙(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5권 2호** 105-122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인과모형. **생활과학 연구논문집 제10권** 41-56
- 이경임(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수행 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주(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수(2000). 가족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2005). 빈곤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적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2010).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4호** 75-91
- 이영임(2009).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평가 차이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아동의 자아개념과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2002). 아동의 인성과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2011).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외동이와 형제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03).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한 독서치료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박미자(2009).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3세대가족 청소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4호** 151-172
- 이학정(2003). 초등학교 정상가정아동과 결손가정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민, 조복희(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2(1)** 17-28
- 이현송(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사회복지학생 연구논총 제1권** 104-161
- 임윤희(2008). 아동의 영성: 초월과 공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15** 115-136
- 장미영(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자(2000).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고찰. **한국생활과학지 제 9권 3호** 258-270
- 정명실(2003). 아동의 공감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2009). 가족체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또래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정(2009). 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9).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 18권 3호** 127-166
- 정희선(2009).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경로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2003).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리(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자(2006).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보가, 전귀연(1993). 논문편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2호** 41-54

최인숙 외 공저(2007).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최은주(2007).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가족관계 특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영민(2004).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호성(2007). 자기조절의 주요변인으로서의 자기통제력과 자아탄력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강의(1998). 경제위기와 아동의 건강 「한국의 경제위기와 아동」. 1998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포럼 자료집.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Barnett, M. A., & Howard, J. A., Melton, E. M., & Dino, G. A.(1982).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 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920-923

Baron-Cohen, S.(2003). Essential Difference : Male and Female Brain and the Truth about Autism. 김혜리, 이승복 역(2007).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 서울: 바다출판사

Bledose, J. C.(1964). Self-Concepts of children and their intelligence, achievement, interests, and anxiet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0, 55-59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Davis, M. H.(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9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66.

Eisenberg, N., & Lennon, R.(1983). Sex difference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Eisenberg, N., & Strayer,(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 Press.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Wosinski, M., Pol-
-azzi, L., Carlo, G., & Juhnke, C.(1996). The relation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974-92.

Findlay, L. C., Girardi, A., & Coplan, R. J.(2006). Links between empathy, social behavior, and social 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347-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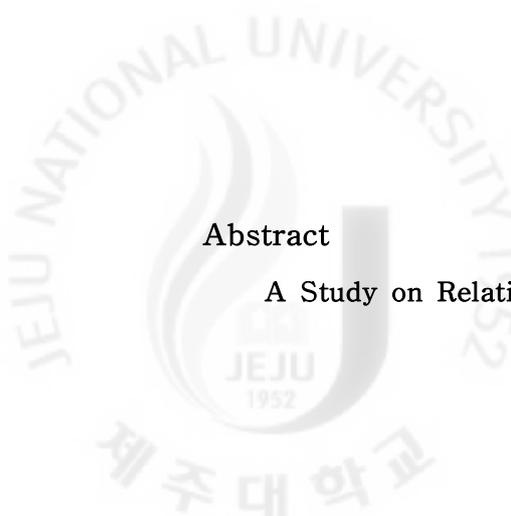
Harter, S. (1990).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self representations: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treatment maladaptiv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113-142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o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Hoyle, R. H. (2006). *Personality and self-regulation: Trait and information*

- 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07–1525.
- Karoly, P. (1993).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A systems 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23–52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54.
- Kochanska, G., Tjebkes, T. L., & Forman, D. R.(1998). Children’s emerging regulation of conduct : Restraint, compliance, and internalization from infancy to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69, 1378–1389
- Lemper, J. D. &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0–39.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per.
- Maslow, A. h.(1971). *The fa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aget, J.(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Trubner.
- Piaget, J., & Inhelder, B.(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York:Basic books.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an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Rogers, C. R.(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ffer(1999). D. R.,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California, Brooks/Cole, 1999
- Wips, Lauren(1987). History of the Concept of Empathy. In Nancy Eisenberg & Janet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sunburst in the center,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around the top and 'JEJU 1952' in the middle. Below the emblem, the Korean text '제주대학교' is written in a curved path.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Based on Home Environment

Lee, Ji Mi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 Kim, Yang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mily characteristics which could affect children by analysis relations among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based on Home Environment.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rograms which could enhance emotional stability and social support for childre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or this study, subjects were 386 boys and girls from five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5th and 6th grade in Jeju cit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8.0 program to estimate the frequencies, mean, t-test, Pearson's correlation. The questionnaire was examined by the Cronbach's α for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The t-test was employed to find the differences in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in the means of their gender. Person's correlation was employed to find the relationship in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employed to find the differences in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based on children's family types, and economic status perceived by them.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employed to analyse relations among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appeared higher in home than in school environment. Emotional empathy was shown higher than perceptual empathy. This means that the ability to know the feelings or emotions of others is better than the ability to know the thoughts of others. In self-regulation, children showed more control in their goals or plans than in restraining their impulsive behavior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their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Empath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ve and emotional empathy and was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Third,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areas and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y showed the lowest self-esteem. Self-regul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wo sub-areas, which are self-control and impulse control. Children from nuclear family showed more self-regulation those from single parent family. Children from nuclear family showed more impulse control than those from single parent family. Empath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Fourth,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areas; such as general, social, and domestic self-esteem. In all areas where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the children who perceived their economic status middle to high showed the highest self-esteem. The children who perceived themselves rather poor showed the lowest self-esteem.

Empath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economic status perceived by children. In self-control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very rich scored higher than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to be average or below average in their economic status.

Fifth,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n self-esteem, empathy,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areas. And positive correlation appeared which means the higher the children's self-esteem, the higher their empathy

and self-regulation, and the higher the empathy, the higher the self-regulation.

In conclusion, childr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based on their family types, but not in empathy.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y showed lower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than those from nuclear family or three generations family.

It is need to develop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ould help children who are from single parent or economically-distressed family, so that they will enhance their self confidence and sense of achievement.



부 록

설문지

--	--	--

(빈칸으로 두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평소 나 자신과 나의 환경, 나의 부모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과 가장 일치되는 표현이나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 수 없고 오직 연구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들을 신중하게 읽은 후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아동심리 전공

지도교수 김 양 순
연구자 이 지 민

II.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기분과 같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쁘다고 우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친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웃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들이 왜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상처를 입은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노래는 너무 슬퍼서 듣다가 울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개와 고양이를 사람처럼 느낌을 가진 듯 대해주는 것은 어리석다.	①	②	③	④	⑤
12	친구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가 필요 없어서 그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좀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아도 혼자 다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규칙을 어겨 선생님께 벌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거기에 꼭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해 정말로 염려되는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26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의 입장에 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바라는 대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즐거운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많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교생활에서 실망한 적이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공부 또는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들은 주로 나의 생각과 의견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나의 가족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끔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친구들이 초대하지 않은 활동이나 게임에 끼어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혼자 흥분하거나 긴장이 되어있을 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먼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공부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하던 일이나 공부를 끝날 때까지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른들의 지도나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갖고 싶은 것을 당장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나는 순서가 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조용히 앉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게임을 중단 시키고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만약 나 자신의 일에 좀더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몇 번씩 생각하고 심사숙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비난이나 꾸지람을 들었을 때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말썽을 피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숙제나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게을리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마지막 페이지는 뒷장에 있습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문제를 해결 할 때 침착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서 사용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어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가는 길을 주의해서 잘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규칙을 지키고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혹시 빠진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